

# 정보화 사회의 승가 사명

## 불교의 불혼(佛魂) 어디에 있는가?

현불 스님(우리불교 조계종 종정, 세계불교 연합 WBOA 총회장)

미래사회의 종교적 사회 가치는 인간의 욕구 본능을 도덕적으로 억제 하면서 수평적 지위와 사회와 가정에서 사아호간 손상되지 않고 질서가 유지되도록 협조와 경쟁과 균형을 지탱해 주는 자비의 실천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현불 스님이 제 4차 WBOA 송년법회 주관하면서 열린 법문의 요지를 정리하여 신다.

용성조사 사바강탄 150주년 봉암 대선사 성도75주년

신념은 강하고 경교하다.

向龍城·鳳庵 兩大禪師 祈願時  
다음은 법문에 앞서 지난 6월 5일 용성조사 사바강탄 150주년과 스님의 사부이신 봉암 대선사 성도75주년에 즈음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해인총림 해인사 용담선원에서 봉행되었던 기념법회에서 낭송한 기원시이다.

한민족의 정신문화는 원시사회의 외경정신과 단군사상, 무속신앙, 유교사상, 불교사상, 인내천사상, 기독교 사상이 공존하고 있다. 이 같은 정신문화는 시대의 환경에 따라 각축을 벌이고 주류가 된 정신문화는 대중의 맹신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이로 인한 가정에서의 종교적 갈등이 사회 공동체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일련의 인류사적 사회 현상은 종교의 본래 기능인 인간의 본성에서 멀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精神이 다 다했어 精神이 들도록  
우리는 우리의 부처를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정보화 사회 이전의 사회 구조는 수직적 지배 구조로 철저한 위계 속에 정치를 하는 통치자가 평화와 공존의 삶을 이끌었다.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수직적 질서에 길들여진 우리 사회는 최근까지 유일사상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사상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정보화 사회의 흐름 속에 기독교사상은 더 이상 인간의 존엄을 억압하고 자유와 평등을 규제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肉身이다 몸개져 새 살이 들도록  
우리는 우리의 老死 龍字 城字 祖師와 사부 鳳字 庵字 禪師 밟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喝을 외치는 주장자를 휘저어 龍鳳家風의 바람 속을 거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歸源正宗의 거친 땅에 돌아난 顯正의 떡잎하나부터 覺海日輪과 海印大學 禪學가자마다 理入四行에 맞다야

**시대의 사명 짊어져야할 불교 단체  
기독교 황제 제도를 모방하는  
몰지각하고 물음치한 행각 더는 볼 수 없어  
힐링의 불교문화 새로운 정보화 사회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유일한 정신도장**

海東佛敎의 淨化初朝요  
己未年 3.1독립운동을 主導하신

민족의 肉身菩薩 龍成진종祖師의 大覺恩想에  
우리는 우리의 家風을 불 지필 일이다.

이런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부처님은 3000여년의 역사 속에 현재와 미래의 인간들의 삶을 수평적 구조 속에서 가정의 윤리를 회복하고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수평적 관계 속에서 도덕적 인격을 갖도록 가르치고 일으켜 세우셨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이며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낼 불혼(佛魂)의 가치를 되새기며 이 시대의 깊은 사명을 짊어져야할 불교 단체들이 과거사적 인류 정신에 몰라돼 기독교 황제 제도를 모방하는 등 몰지각하고 물음치한 행각을 더는 볼 수 없어 불 혼을 일깨우는 바이다.

光州學生獨立運動의 先驅者로  
幼年의 五慾樂에 깨어나  
빛고을의 빛이 되어 傳法度生의 普提의 華가 되신 鳳庵大喜禪師의 覺行覺滿의 究竟覺에  
우리는 우리의 거친 숨을 보낼것이다.  
鳳庵門徒의 일령이는 動修精進의 피와  
다 뭉개진 肉身의 허연 뼈까지도  
에 보낼일이다. - 玄佛和南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에 대하여 맹신  
종교적 갈등이 사회공동체간의 갈등  
종교의 본래 기능 상실**

불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인류 문명 속에 평등과 자리아타행으로 생명 존중의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부처님이 미혹한 중생을 일깨우기 위하여 사바세계에 출현 하시어 초월적 존재로만 여겨왔던 유일 신성의 대상이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나 신성이 있다는 보편적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 수행정진을 하면 누구나 아라한과를 얻고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평등사상을 일깨워 주었다.

21세기 종교 문화는 정보화 산업시대의 인간적인 정신문화와 그 궤를 달리 하면서 현대인의 의식구조에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개 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사회의 한 축이 무너지면서 혼돈과 무질서의 수렁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종교가 이 시대의 대중적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 맹신하고 있다. 더더욱 이 같은 현상은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

인간의 욕구본능을 도덕적으로 억제하면서 수평적 지위가 상호간 손상되지 않고 질서가 유지되도록 협조와 경쟁과 균형을 지탱하여 주는 종교적 사



현불 스님은 ... 1948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다. 속가 외조부 馬江선사는 학명, 만암, 해인 선사 등 호남의 선종 정과 두터운 교분을 쌓고 중국 불교와도 깊은 인연을 맺어 왔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스님은 1968년 용주사에서 전장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하였다. 이후 꾸준한 포교와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미래 사회의 불교 확립에 앞장서 세계불교 종단협의회(WBOA)를 이끌고 있다.

**한 소식의 활을 하면 범양이요, 사자후를 토한 자리가 범양청이다.  
일부 승단에서 교황적 수직 관계주장은 반 인류사적 악행초치  
행을 통한 수평적 인간사회윤리를 정립하여 가는 과정이 승가의 사명**

명이 절실할 요구될 때 한국 승가의 사명이 재정립 되어지고 선교양종의 조화 속에서 수평적 경쟁에서 오는 에너지 방전을 증진 시켜주는 도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죽음의 문제에 편중된 재문화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는 힐링의 불교문화로 재도약해야 할 것이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수공업은 기계공업으로 그 능률을 얼마나 올렸으며 인간의 고통은 우주왕복하고 있다. 그러나 문명을 악용하는 일부 국가는 이 진보된 문명을 부당이익의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위권이라는 평화의 수단으로 미화하고 있다.

이는 우리불교의 화쟁사상이 세계불교가 될 수 있도록 원효성사의 생활불교를 널리 홍보하고 실천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불교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전 인류를 유일신 성론으로 수직화 된 맹종의 문화와 기도로 구원된다는 맹신적 인류에서 주체적 삶을 살아가도록 승가는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평등사상이야말로 새로운 정보화 사회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유일한 정신도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승가의 안목으로 볼 때 그들의 이러한 사실은 자아의 오인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진실한 자아가 강자 독재의 권력을 의미할까? 약자물락의 참상을 겪변 하는 가면상의 평화를 위장할까? 그렇다면 인간의 욕망이 근본적 자아라면 결국 인간을 아수라장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 아닌가?  
이 자아의 발전은 수평화된 평등사회의 개인과 개인은 서로 시기하고 생산자와 생산자는 서로 적이 되어 필경 인간은 멸망의 나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닐

까? 아니다 범종(法鐘)의 범주에서는 자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개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류의 평화를 최고의 이상으로 하여 향상하려는 것이다.

삼천(三千)년전 대천사바(大天婆娑)를 움직인 석가세존의 말씀이신 이타적 자아가 그것이다. 이런 절대 세상이 아니고서야 어찌 감히 전 인류의 이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서양 문명의 품에 도취하여 분별 심을 잃고 반문명적 우리 사회의 현실에 반(反)하여 오히려 서구문명은 수평화 되어 있는 미래사회 구조의 인간 욕망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불교학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실로 동서의 문명 교차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음을 자괴하지 않을 수 없다.

**원효성사의 화쟁강단 사상은 전 인류의 바이블**

유일신 성론의 기독교 사관으로 보편적 신성의 인간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전 문명적 종교야말로 타락의 회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성(大聖)의 법화(法化)를 입고 석가의 종통을 계승하는 불교도의 감개! 과연 어떠한가? 부처님의 덕을 생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조로 하는 자 어찌 태연히 지나 칠 수 있는가?

행이 옳음을 얻지 못하면 옳다고 할 수 없고 의(義)가 불의(不義)를 분별(分辨)하지 못하면 인생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찌 자아의 이상을 체득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불교도가 과연 자아의 입장에서 인생의 정체를 의식하고 그 행도가 의를 얻었는가? 만일 그 행(行)이 의(義)를 얻고 인생의식(人生意識)이 자하관하(自我觀下)에서 라면 그 내용을 불교학을 이해함에 있고 그 표상(表象)은 불교를 선양함에 벗어 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한국승가(僧家)의 선천적 사명이 이것이요 미래사회를 지탱해 줄 인륜도덕의 중국적 총합이 이것일 뿐이라 할 것이다.

문명의 변화에 비추어 불교의 유정무정을 진동한 사자후에 깨어진 직계법손의 사명이야말로 원효성사의 화쟁강단에 전 인류가 귀를 세워 불교 상이 정립되어 질 것이다.

불손(佛孫)으로서 이만한 문화를 벗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요즘 일부 승단에서는 이러한 불교문명의 사명을 외면하고 교황적 수직 관계로 반 인류사적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참상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한 소식의 활을 하면 범양이요, 사자후를 토한 자리가 범양청일진데 왜 시대에 역행하는 망상의 행을 하는 지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불교도 종교인 이상 위상을 갖추어야 하나 이는 기구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화도량의 위신력으로 불교도의 자아적 사명으로 바른 행을 실천하고 평등한 수평적 인간사회윤리를 정립하여 가는 과정이 승가의 사명이요 힐링 불교문화로 정보화시대의 인간존엄을 위상시키는 일일 것이다.

칸트는 직관형으로 시간과 공간을 말했다. 인간적 사실에서 초월하기 까지는 이 형식을 떠나서는 사색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 인간문화의 창조를 논함에도 아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아직 인간인 까닭이다.



禪農教團 宗務法人

##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할시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